

김의수 작사  
김동국 작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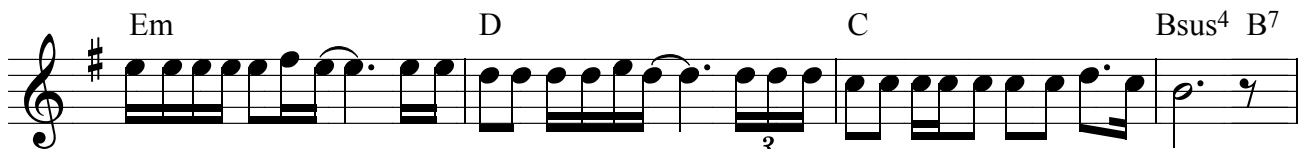
그 어느날 -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- 내 삶속에 덮이임했 - 네  
그 어느날 - 아무 예고 - 도 - 없이 - 내 삶속에 슬픔이임했 - 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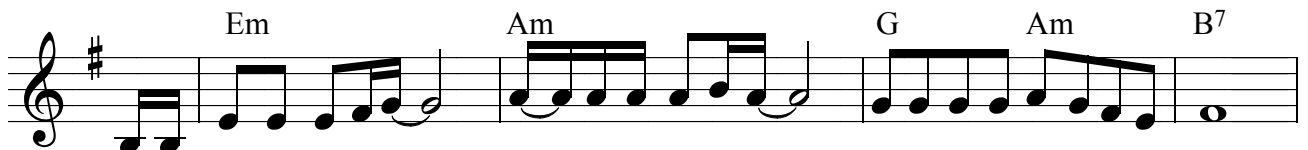
몸 - 부림쳤지만 - 허우적거렸지만 - 나는 약한 자였네  
원 - 인을 찾으며 - 애 - 써 봤 - 지만 - 나는 무력한 자였네



내 영혼아 네가 어찌 하여 낙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



하나님을 바라라 - 그 열 굴의 도우심을 -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



나의 줄은 신주님 - 태 - 양을 멈추며 -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 
나의 줄은 신주님 - 죽은 자를 살리며 -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



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주셨네